

“입학예정 학생 대상 선행학습 안돼”

도교육청, 새 학기 앞두고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당부

전북교육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공교육정상화추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에 유의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반 배치고사, 상급학교 입학 전에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과정, 상급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해 제출하거나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과정 등이 금지된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성적순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 및 이동수업도 금지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자칫 우열반으로 인식돼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키

는 부작용 등의 문제점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설 명절을 맞아 21일 김제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김승환 교육감, 설 명절 맞아 김제노인복지센터 방문 위문품 전달

김승환 교육감이 설 명절을 맞아 21일 김제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1일부터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30곳을 방문해 약 1,500여 만원 상당의 쌀과 화장지, 김 등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용기를 주고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일 전주대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안전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 교육 실시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일 전주대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관내 조리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작업 안전 관리 10계명, 개인 위생관리와 교차오염 예방 및 식식재 세척, 소독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에는 조리실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노하우 및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차경희 센터장은 “조리사의 전문성

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주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관내 280개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또한 균형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취업률 전국 최상위권 호원대, 8년 연속 등록금 동결·입학금 20% 인하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201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8년 연속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유지했다.

또한 입학금도 20% 인하했다. 작년 기준 36만7,000원에서 20% 내린 28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호원대학교는 2022년까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호원대 등록금은 2012학년도 3.2% 인하, 2013학년도 1.78%, 2014학년도 0.7% 인하한데 이어 2015학년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

강희성 총장은 “호원대는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통해 전국 최상위권(3년간 76.2%)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동결은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부응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호원대학교는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다양한 장학혜택을 제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우수자에게 내신장학금(수시모집) 및 수능장학금



호원대학교 전경.

(정시 및 추가모집), 출신고교 학교장 장학금(수시 및 정시모집), 인당장학금(전북권 전체 및 충남 인접지역 고교 졸업자) 등의 다양한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에게는 성적 장학금 외

에도 취업능력개발장학금, 복지지원 장학금, 호프장학금(HOPE, 취업특성화프로그램 인증점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농어촌용자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학생들의 면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합격자 최종 등록기간은 30일부터 2월1일까지며 등록금 고지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초등학교 예비소집 순항

불참인원 1097명 중 소재불명 1명 경찰 수사외의 예정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소재 불명 아동수는 1명이라고 밝혔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수는 총 1만7012명으로 이중 1만5915명이 예비소집에 참여했다.

예비소집 불참인원은 총 1097명으로 이 가운데 479명은 전학예정 이동이고, 608명은 취학유예 및 면제 아동으로 확인됐다.

또 9명은 예비소집 이후 해당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소재불명 아동은 1명으로 파악됐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 A아동은 2014년 해외출국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부모와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안전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부설초 장기근속교원 표창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최근 대학본부동 2층 총장실에서 5년 근속한 교원(부설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총장 표창을 수여했다. 그리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공로패를 주었다.

이번 총장표창(근속상)의 대상자는 김수는 교사(전주부설초), 박선하 교사(전주부설초), 여선구 교사(군산부설초) 이상 3명이다.

김수는 교사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학습자료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을 통해 아동의 올바른 정서교육함양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선하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 외

소질개발·교육과정 도서 개발·통합교육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등 특수교육발전에 공헌했다.

여선구 교사는 예능교육활성화 인성지도 및 내실 있는 교과연구 및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공교육의 위상을 세우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모범공무원에도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군산부설초 홍석기 교장은 정년퇴직 예정자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홍석기 교장은 2015년 9월부터 군산부설초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덕·지·체를 겸비한 유능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